

# 북유럽을 달군 IT 수출 열기

글\_ 심규호\_ 전자신문 기자

미국, 독일 등 주요 교역국가의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까지 침체상태에 놓여있던 북유럽 국가들의 경기가 교역규모 성장세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IT 관련제품들의 수출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올 상반기 북유럽 국가 수출실적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.



이러한 IT수출 호조는 당분간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여 판매선 다각화와 현지화 전략이 더욱 가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## 무선통신기기 · 컴퓨터 품목 급성장 전망

KOTRA 스톡홀름 무역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대북유럽 IT 수출 상황을 점검한다.

**스웨덴** - 우리 기업들은 스웨덴 시장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4.3%의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했다. 특히 컴퓨터의 경우 지난해 스웨덴 시장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32.1%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무려 150배 이상 늘어났다. 특히 새학기 시작과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는 올 하반기에는 컴퓨터 및 관련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지난해 90.2%의 수출 감소세를 나타낸 반도체 역시 올 상반기에는 151.4%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. 휴대폰 또한 경쟁 심화와 시장포화 상태 속에서도 올 상반기 8.1%의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. 특히 휴대폰의 경우 최근 LG전자 현지 판매법인이 관련시장에 신규 진출해 올 하반기에는 두자릿수대의 수출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다.

**핀란드** - IT부문 경기가 바닥이었던 지난 2001년 우리나라 휴대폰 수출실적이 52%나 감소한 바 있으나 지난해 97.4%의 증가세로 반전됐고 올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76.8%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대핀란드 수출액 제1위 품목으로 떠올랐다. 지난 2001년 87.7%의 수출 감소세를 나타낸 우리나라 무선통신기기부품 품목 역시 지난해 225%, 2003년 상반기 430.5%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우리나라의 대핀란드 컴퓨터 수출도 전년 상승세에 이어 올 상반기 100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.

**노르웨이 · 덴마크** - 노르웨이 모니터 시장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64.7%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올 상반기에는 55.6%의 증가세를 반전될 만큼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. 덴마크 모니터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0.8%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. 특히 지난해 전년대비 11.2%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던 컴퓨터 품목은 올 상반기 덴마크 시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088.6%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. **KOVA**